『方藥合編』 收錄 處方 內의 藥物 조합 頻度 연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백진웅 · 이병욱**

A study on the frequencies of medicinal herb combinations in the prescriptions of 『Bangyakhappyeon(方藥合編)』

Division of Human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Baek Jin-ung · Lee Byungwook**

Through analyzing the frequencies of medicinal herb combinations in the prescriptions of 『Bangyakhappyeon(方藥合編)』, we c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rescription composition and author's medical thoughts. So we conducted this study that analyze combination of 324 medicinal herbs in 467 prescriptions, and found meaningful combinations of 5,045. Among these, the most meaningful combination is the one of 10 herbs,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Angelica gigas Nakai, Ziziphus jujube Mille,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Poria cocas Wolf, Zingiber officinale, Rehmanniae radix preparata, Cinnamomum loureirii, Panax ginseng C.A.Meyer, Astragalus membranaceus. This combination is Sibjeondaebo-tang(Shiquandabu-tang) without Cnidium officinale and Paeonia japonica which compose Samul-tang(Siwu-tang). It means this combination is kind of modified Sibjeondaebo-tang(Shiquandabu-tang), which is more effective in tonifying qi than tonifying blood. Prescriptions of 『Bangyakhappyeon(方藥合編)』 involve herbs mostly used to improve weak and frail health and the herbs which are more effective in tonifying qi than tonifying blood. Through this study, we know the author' s one of medical view points on tonifying qi and blood, attaching importance to tonifying qi relatively to tonifying blood.

Key Words : Bangyakhappyeon(方藥合編), medicinal herb combination, frequency,

Ⅰ. 序 論

조선 후기 한의학자인 黃度淵(1807~1884)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醫門寶鑑』, 『濟衆新編』, 『醫學入門』, 『景岳全書』 등의 醫書에서 많이 활용되는 名方만을 간결하게 나열하여 『醫方活套』를 저술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인 黃泌秀가 이를 黃度淵의 또 다른 저서인 『損益本草』와 合編하고, 또 用藥綱領, 救急, 禁忌, 製造門 등을 추가하여 편찬한 것이 바로 『方藥合編』이다.[1] 『方藥合編』 은 한의학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병욱.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omis@pusan.ac.kr Tel : 051-510-8451
접수일(2011년 6월27일), 수정일(2011년 6월27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19일)

1) 金亨泰, 尹暢烈.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1. 제5권. p.171.

한의학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2] 현재도 『東醫寶鑑』과 더불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醫書다.[3]

이처럼 중요한 醫書이므로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크게 보면 『方藥合編』의 편제와 특징과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와 『方藥合編』 수록 處方 및 藥物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前者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4]와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5]를 들 수 있다. 後者에 해당하는 연구는 좀 더 세분화되는데, 系統別 處方群에 관한 연구로 '方藥合編 上統 處方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6]와 '方藥合編 下統 方劑의 病症 및 病理 活用에 대한 考察'[7]을 들 수 있고, 특정 疾病群과 관련된 處方에 관한 연구로 '方藥合編 皮膚外科 處方에 대한 分析'[8]과 '方藥合編에 수재된 神經精神科 관련 주요 處方에 대한 硏究'[9]과 '方藥合編에 收錄된 痺證處方에 對한 硏究'[10]와 '方藥合編 中 婦人科에 관련된 方劑의 활용에 대한 고찰'[11]을 들 수 있고, 특정 약물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연구로 '方藥合編中 羌活 및 獨活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와[12] '桃仁 및 紅花를 포함하는 方藥合編 處方에 대한 考察'[13]과 '方藥合編中 牛膝 및 續斷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14]과 '方藥合編處中 鹿茸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15]과 '附子를 包含하는 方藥合編 處方에 대한 考察'[16]과 '生薑 三片과 大棗 二枚의 사용에 대한 考察(方藥合編을 중심으로)'[17]과 '方藥合編 中 蒼朮이 配伍된 方劑의 活用에 대한 考察'[18]과 '黃芩 片芩 및 條芩의 處方例에 關한 文獻的 考察(方藥合編의 上中下統 處方을 中心으로)'[19]과 '方藥合編中 大黃 및 梔子를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20]과 '方藥合編 中 生薑 및 大棗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21]과 '方藥合編中 遠志 및 石菖蒲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22]을 들 수 있다.

2) 金亨泰, 尹暢烈.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1. 제5권. p.193.
3) 한주원, 오민석. 方藥合編中 牛膝 및 續斷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 제14권 1호. p.179.
4) 金亨泰, 尹暢烈.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1. 제5권. pp.151-199.
5) 이선아. 이시형.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 제11권 1호. pp.101-109.
6) 이상현. 方藥合編 上統 處方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9. 제17권 1호. pp.1-16.
7) 염현식, 김희수. 方藥合編 下統 方劑의 病症 및 病理 活用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3. 제11권 1호. pp.45-55.
8) 박민철, 최인화. 方藥合編 皮膚外科 處方에 대한 分析.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 제16권1호. pp.42-62.
9) 김지훈, 구병수, 김근우. 方藥合編에 수재된 神經精神科 관련 주요 處方에 대한 硏究.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9. 제20권 1호. pp.89-106.
10) 이중휘, 송태원, 오민석. 方藥合編에 收錄된 痺證處方에 對한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1. 제10권 1호. pp.375-383.
11) 조대연, 김영일, 이용숙, 강성현, 박종찬, 노의준, 윤용갑. 方藥合編 中 婦人科에 관련된 方劑의 활용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pp.1543-1547.
12) 이주호, 윤일지, 오민석. 方藥合編中 羌活 및 獨活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 제14권 1호. pp.167-177.
13) 황상준, 오민석, 송태원. 桃仁 및 紅花를 포함하는 方藥合編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3권 1호. pp.311-320.
14) 한주원, 오민석. 方藥合編中 牛膝 및 續斷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 제14권 1호. pp.179-186.
15) 최재영, 오민석. 方藥合編處中 鹿茸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1호. pp.161-167.
16) 송인선, 오민석, 송태원. 附子를 包含하는 方藥合編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1. 제10권 1호. pp.323-336.
17) 임영환, 국윤범. 生薑 三片과 大棗 二枚의 사용에 대한 考察 (方藥合編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6. 제14권 1호. pp.1-10.
18) 박종찬, 이장천, 국윤범, 염현식, 윤용갑. 方藥合編 中 蒼朮이 配伍된 方劑의 活用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3. 제11권 2호. pp.41-60.
19) 김상찬, 변준석. 黃芩 片芩 및 條芩의 處方例에 關한 文獻的 考察(方藥合編의 上中下統 處方을 中心으로). 동서의학지. 1998. 제23권 4호. pp.78-100.
20) 한영수, 박갑규, 엄희정, 오민석.『方藥合編』中 大黃 및 梔子를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47-261.
21) 배재현, 윤일지, 오민석. 方藥合編中 生薑 및 大棗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11-230.
22) 신홍중, 조연행, 조창환, 오민석. 方藥合編中 遠志 및 石菖蒲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31-238.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方藥合編』 수록 處方 내의 頻用 藥物 조합에 대한 조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 藥材의 사용 빈도에 대한 연구로는 '方藥合編에 收錄된 藥物의 頻度調査'[23]가 있지만, 『方藥合編』에 수록된 총 324 개의 藥物들이[24] 서로 조합되는 頻度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필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324 개의 藥物 조합의 경우의 수가 워낙 방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處方 분석을 통해 『方藥合編』의 方劑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 著者의 醫學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24 개의 藥物이 467 개 處方 속에서 만들고 있는 藥物 조합의 頻度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검색 방법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資料 및 硏究 方法

1. 資料의 구성

1) www.wooks.or.kr 에 저장된『方藥合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2)『方藥合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467 개의 處方 및 그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324 개의 藥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硏究 方法

1) 사용된 약물의 용량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된 본초의 종류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약물 조합이 얼마나 많은 處方에 사용되었는지 그 頻度를 분석하였다.

2)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색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頻用된 약물 조합만을 선택적으로 생성시켜 그 頻度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검색이 불필요한 조합을 배제함으로써 검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23) 강성용, 최민호, 변재영, 한종현. 方藥合編에 收錄된 藥物의 頻度調査. 원광한의학회지. 1991. 제1권 1호. pp.19-31.

24) 기존의 연구(강성용, 최민호, 변재영, 한종현. 方藥合編에 收錄된 藥物의 頻度調査. 원광한의학회지. 1991. 제1권 1호. p.31.)에서는 方藥合編이 323종의 藥材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24종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藥用 部位에 따라 혹은 法製 有無에 따라 適應症의 차이가 큰 경우는 基源 藥材가 같다하더라도 서로 별개의 藥材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각각의 독립된 藥材로 판단한 本草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訶子, 訶子皮, 葛根, 甘遂, 甘草, 羌活, 薑黃, 梗米, 乾薑, 乾地黃, 芡實, 牽牛子, 輕粉, 鷄內金, 桂心, 鷄腸, 桂枝, 苦楝根皮, 枯白礬, 藁本, 昆布, 瓜, 瓜蔞仁, 藿香, 款冬花, 槐花, 枸杞子, 瞿麥, 菊花, 龜板, 橘核, 桔梗, 金櫻子, 金銀花, 糯米, 爐甘石, 蘆會, 鹿角膠, 鹿茸, 丹參, 膽礬, 當歸, 當歸尾, 大戟, 大豆黃卷, 大腹子, 大腹皮, 代赭石, 大棗, 大黃, 菟絲子, 桃仁, 桃枝, 獨活, 冬葵子, 豆豉, 杜沖, 燈心草, 萊菔子, 鹿角霜, 鹿茸, 龍骨, 柳枝, 鯉魚, 馬牙硝, 麻黃, 蔓荊子, 芒硝, 梅, 麥門冬, 麥芽, 牡蠣, 木瓜, 牧丹皮, 木賊, 木通, 木香, 沒藥, 薄荷, 半夏, 半夏麴, 防己, 防風, 白僵蠶, 白芥子, 白檀香, 白豆寇, 白附子, 白鮮皮, 百合, 白花蛇, 白蘞, 便香附, 鼈甲, 補骨脂, 茯苓, 茯苓皮, 茯神, 蜂蜜, 附子, 硼砂, 萆薢子仁, 萆薢, 檳榔, 冰片, 射干, 絲瓜, 使君子肉, 砂糖, 砂仁, 麝香, 山豆根, 山楂, 山査子, 山茱萸, 山藥, 酸棗仁, 三稜, 桑寄生, 桑白皮, 常山, 商陸, 桑螵蛸, 生薑, 生薑皮, 生韮菜, 生栗, 生梨, 生茅根, 生附子, 生栗, 生地黃, 生兎, 生荷葉, 犀角, 石決明, 石膏, 石斛, 石雄黃, 石菖蒲, 旋覆花, 蟬蛻, 細茶, 細槪肉, 細辛, 小麥, 蘇木, 蘇子, 蘇合香, 小茴香, 續斷, 粟米, 熟地黃, 升麻, 柴胡, 食鹽, 神麴, 阿膠, 莪朮, 安息香, 艾葉, 罌粟殼, 陽起石, 羊腎, 羊肉, 連翹, 鉛丹, 蓮子肉, 焰硝, 羚羊角, 五加皮, 五靈脂, 烏梅, 五味子, 吳茱萸, 烏藥, 煨薑, 龍膽草, 龍眼肉, 牛膽南星, 牛蒡子, 牛膝, 藕節, 牛黃, 郁李仁, 鬱金, 熊膽, 雄黃, 遠志, 芫靑, 威靈仙, 柳枝, 乳香, 肉桂, 肉豆寇, 肉蓯蓉, 銀箔, 銀行, 薏苡仁, 益母草, 益智仁, 人蔘, 茵蔯蒿, 炙甘草, 紫檀香, 磁石, 紫石英, 紫蘇葉, 紫草, 紫河車, 紫菀, 芍藥, 猪苓, 猪蹄, 赤茯苓, 赤石脂, 赤小豆, 赤芍藥, 赤何首烏, 全蝎, 纏豆藤, 前胡, 丁香, 丁香皮, 錘乳粉, 竹瀝, 竹茹, 竹葉, 枳殼, 地骨皮, 知母, 枳實, 地楡, 珍珠, 陳倉米, 陳皮, 秦艽, 車前子, 蒼耳子, 蒼朮, 川芎, 天南星, 川楝子, 天麻, 天門冬, 穿山甲, 川烏頭, 川椒, 天竺黃, 川貝母, 天花粉, 靑黛, 靑箱子, 靑葱, 靑皮, 靑礞石, 靑葙子, 草果, 草豆寇, 蜀椒, 葱白, 秋麥, 春茶, 梔子, 沈香, 澤瀉, 土茯苓, 通草, 巴戟天, 巴豆, 片芩, 萹蓄, 蒲黃, 華撥, 畢澄茄, 夏枯草, 寒水石, 寒食麵, 海金砂, 海帶, 海桐皮, 海粉, 海參, 海藻, 海螵蛸, 杏仁, 香附子, 香薷, 玄蔘, 玄胡索, 荊芥, 虎骨, 胡桃肉, 胡桐淚, 琥珀, 胡椒, 胡黃連, 紅花, 火麻仁, 滑石, 黃狗, 黃芩, 黃金, 黃芪, 黃連, 黃米, 黃柏, 黃桑葉, 黃松節, 厚朴, 黑豆, 柿霜, 柿蒂, 皂角刺, 皂莢, 荔枝核, 葶藶子.

하기 위해서이다.

3) 2)에서 말한 특별하게 頻用된 약물 조합만을 선택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약물 조합을 구성하는 약물의 수를 n(n은 자연수, n≧1))[25] 개라 할 때, n 개의 藥物 조합의 頻度를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n+1의 藥物 조합의 頻度를 분석한다. 즉 n=1인 藥物 조합의 頻度를 제일 먼저 분석하고, 여기에 藥物을 하나씩 추가하여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n 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각 藥物 조합이 467 개의 處方 속에서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표준편차'[26]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를 구한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구한 자연수를 최소 頻度數로 설정하고, 이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藥物 조합만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별한다. 'n 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각 藥物 조합이 467 개의 處方 속에서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표준편차' 보다 큰 頻度數를 가지는 藥物 조합이라야 그렇지 않은 藥物 조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최소 頻度數가 『方藥合編』 전체 處方 개수인 467의 1%인 4.67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인 5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미만의 頻度로 사용된 약물 조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분석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셋째 단계에서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별된 조합을 다음 단계인 n+1의 藥物 조합을 검색하는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섯째, 넷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검색 대상으로 선정한 n 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약물 조합에 새로운 약물 1 개를 추가하여 n+1 개로 이루어진 약물 조합을 구성하고 그 頻度를 분석한다.

여섯째,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할 때까지 둘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단계를 반복한다.

25)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不定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수로 한정한다. 즉 본 논문에서의 n은 n≧1인 자연수를 의미한다.

26) 頻度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두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Ⅲ. 本 論

1. 藥物 조합 頻度 분석

1) 頻度 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의 개수

467 개 處方 내에서 324 개의 藥物이 이루고 있는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는 $2^{324}-1$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藥物 조합이 실재하지는 않는다. 또 실재하는 藥物 조합 중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적은 頻度의 藥物 조합이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藥物 조합과 頻度가 적은 藥物 조합을 배제하고, 실재하는 藥物 조합 중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多頻度의 조합을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n 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각 藥物 조합이 467 개의 處方 속에서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표준편차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를 多頻度의 조합으로 인정하는 최소 頻度數로 설정하고, 만약 이 數가 5보다 작을 때에는 5를 최소 頻度數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소 頻度數의 조건을 충족하는, 즉 상대적으로 多頻度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5,045 개였고, 이 중 藥物의 개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10 개의 藥物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方藥合編』의 467개 處方 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이 모두 5,045 개라는 의미고, 또 11 개 이상의 藥物로 이루어진 藥物 조합 중 최소 빈도수를 충족하는 조합은 없다는 의미다. 각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별로 頻度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의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도표 1에서 藥物 개수별 조합수를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1 개인 경우는 27 개의 조합부터 藥物의 개수가 10 개인 경우는 1 개의 조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빈도로 사용된 조합이라고 인정할 만한 최소 頻度數의 조건을 충족하는 藥物 조합의 수는 모두 5,045 개로 나타났다.

표 1. 각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별 頻度 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 충족 조합 개수

藥物 數	頻度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조합 數
1	12.9	28.1	42	25
2	6.1	11.0	18	155
3	3.8	5.6	10	549
4	2.7	3.2	6	1336
5	2.1	2.0	5	1568
6	1.8	1.5	5	964
7	1.7	1.2	5	352
8	1.6	1.1	5	78
9	1.9	1.4	5	17
10	1.3	0.8	5	1

앞으로 藥物 개수별로 각 藥物 조합을 살펴볼 것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 모든 藥物 조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의상 상위 15 개 전후의 藥物 조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27]

2) 1 개의 藥物 중 多頻度 藥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324 개의 藥物이 각각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2.9이고 표준편차는 28.1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42이다. 즉 藥物이 1 개인 경우는 42 회 이상 사용된 藥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은 모두 25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 개의 藥物 중 多頻度 藥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287
2	生薑	174
3	當歸	161
4	陳皮	153
5	人蔘	129
6	白朮	125
7	川芎	105
8	白芍藥	91
9	大棗	90
10	茯苓	89
11	半夏	85
12	赤茯苓	67
13	蒼朮	57
	防風	57
	熟地黃	57
	厚朴	57

27) 같은 頻度로 사용된 공동 순위의 藥物 조합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개수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15 개 전후로 융통성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 2를 살펴보면, 324 개 藥物 중에서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은 甘草로 287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生薑으로 174 회, 그 다음은 當歸로 161 회, 그 다음은 陳皮로 153 회 등으로 나타났다.

3) 藥物의 개수가 2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2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6.1이고 표준편차는 11.0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18이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2 개인 경우는 18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155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藥物의 개수가 2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生薑	142
2	甘草, 陳皮	120
3	甘草, 當歸	106
	甘草, 人蔘	105
5	甘草, 白朮	95
6	生薑, 陳皮	89
7	大棗, 生薑	82
8	甘草, 川芎	79
9	甘草, 大棗	76
10	白朮, 人蔘	73
11	甘草, 半夏	72
12	甘草, 白芍藥	70
13	當歸, 川芎	68
	甘草, 茯苓	67
15	半夏, 生薑	66
	白朮, 陳皮	

도표 3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2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와 生薑의 조합으로 142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와 陳皮의 조합으로 120 회, 그 다음은 甘草와 當歸의 조합으로 106 회 순으로 나타났다.

4) 藥物의 개수가 3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3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3.8이고 표준편차는 5.6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10이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3 개인 경우는 10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549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藥物의 개수가 3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生薑, 陳皮	84
2	甘草, 大棗, 生薑	72
3	甘草, 白朮, 人蔘	62
4	甘草, 生薑, 人蔘	59
5	甘草, 半夏, 生薑	57
6	甘草, 白朮, 陳皮	55
7	甘草, 半夏, 陳皮	53
8	甘草, 人蔘, 陳皮	49
9	甘草, 當歸, 白芍藥	47
	甘草, 當歸, 生薑	
	甘草, 茯苓, 人蔘	
	大棗, 生薑, 陳皮	
13	甘草, 大棗, 陳皮	46
	甘草, 當歸, 人蔘	
	甘草, 當歸, 川芎	
	甘草, 白朮, 生薑	
	甘草, 白朮, 茯苓	

도표 4를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3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와 生薑과 陳皮의 조합으로 84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와 大棗와 生薑의 조합으로 72 회, 그 다음은 甘草와 白朮과 人蔘의 조합으로 62 회 순으로 나타났다.

5) 藥物의 개수가 4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4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2.7이고 표준편차는 3.2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6이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4 개인 경우는 6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1,336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藥物의 개수가 4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大棗, 生薑, 陳皮	45
2	甘草, 半夏, 生薑, 陳皮	40
3	甘草, 大棗, 生薑, 人蔘	38
4	甘草, 白朮, 人蔘, 陳皮	37
5	甘草, 白朮, 茯苓, 人蔘	36
6	甘草, 生薑, 人蔘, 陳皮	33
7	甘草, 當歸, 白朮, 人蔘	31
8	甘草, 當歸, 白芍藥, 川芎	30
	甘草, 當歸, 白芍藥, 人蔘	
	甘草, 大棗, 白朮, 生薑	
	甘草, 白朮, 生薑, 陳皮	
	甘草, 茯苓, 人蔘, 陳皮	
13	甘草, 白朮, 生薑, 人蔘	29
14	甘草, 大棗, 半夏, 生薑	28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도표 5를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4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生薑, 陳皮의 조합으로 45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 半夏, 生薑, 陳皮의 조합으로 40 회, 그 다음은 甘草, 大棗, 生薑, 人蔘의 조합으로 38 회 순으로 나타났다.

6) 藥物의 개수가 5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5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2.1이고 표준편차는 2.0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5이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5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1,568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藥物의 개수가 5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	23
2	甘草, 大棗, 半夏, 生薑, 陳皮	22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人蔘	
4	甘草, 大棗, 白朮, 茯苓, 生薑	21
	甘草, 大棗, 生薑, 人蔘, 陳皮	
6	甘草, 白朮, 生薑, 人蔘, 陳皮	20
	甘草, 當歸, 白芍藥, 人蔘, 川芎	
	甘草, 半夏, 生薑, 人蔘, 陳皮	
9	甘草, 白朮, 茯苓, 人蔘, 陳皮	19
	甘草, 大棗, 白朮, 生薑, 陳皮	
11	甘草, 大棗, 茯苓, 生薑, 人蔘	18
	甘草, 半夏, 茯苓, 生薑, 陳皮	
13	甘草, 當歸, 白朮, 人蔘, 陳皮	17
	甘草, 當歸, 白朮, 人蔘, 黃芪	
	甘草, 大棗, 白朮, 茯苓, 人蔘	
	甘草, 大棗, 半夏, 生薑, 人蔘	
	甘草, 大棗, 生薑, 陳皮, 厚朴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甘草, 白朮, 茯苓, 生薑, 人蔘	
	甘草, 茯苓, 生薑, 人蔘, 陳皮	

도표 6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5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의 조합으로 23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 大棗, 半夏, 生薑, 陳皮의 조합과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人蔘의 조합이 모두 22 회 나타났다.

7) 藥物의 개수가 6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6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8이고 표준편차는 1.5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3인데, 이는 5보다 작으므로 결국 5가 최소 頻度數가 된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6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964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藥物의 개수가 6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大棗, 白朮, 茯苓, 生薑, 人蔘	16
2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 陳皮	15
3	甘草, 大棗, 茯苓, 生薑, 人蔘, 陳皮	14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大棗, 白朮, 茯苓, 生薑, 人蔘, 陳皮	
6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人蔘, 川芎	13
	甘草, 大棗, 白朮, 茯苓, 人蔘, 陳皮	
8	甘草, 大棗, 白朮, 茯苓, 生薑, 陳皮	12
	甘草, 大棗, 半夏, 生薑, 人蔘, 陳皮	
	甘草, 大棗, 白芍藥, 白朮, 茯苓, 生薑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人蔘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人蔘, 陳皮	
	甘草, 當歸, 白芍藥, 熟地黃, 人蔘, 川芎	
14	甘草, 當歸, 白朮, 生薑, 人蔘, 黃芪	11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熟地黃, 川芎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茯苓, 人蔘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熟地黃,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朮, 茯苓, 生薑	
	甘草, 大棗, 半夏, 茯苓, 生薑, 陳皮	
	甘草, 大棗, 白芍藥, 白朮, 附子, 生薑	
	甘草, 白朮, 茯苓, 生薑, 人蔘, 陳皮	

도표 7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6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人蔘의 조합으로 16 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 陳皮의 조합으로 15 회, 그 다음은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人蔘, 陳皮의 조합과 甘草, 大棗, 白茯苓, 生薑, 人蔘, 陳皮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의 조합이 공동으로 14 회 사용되었다.

8) 藥物의 개수가 7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7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7이고 표준편차는 1.2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3인데, 이는 5보다 작으므로 결국 5가 최소 頻度數가 된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7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352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5 개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藥物의 개수가 7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大棗, 白朮, 茯苓, 生薑, 人蔘, 陳皮	11
2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人蔘, 黃芪	10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熟地黃, 人蔘, 川芎	
4	大棗, 半夏, 白朮, 茯苓, 生薑, 人蔘, 陳皮	9
5	甘草, 當歸, 白芍藥, 茯苓, 熟地黃, 人蔘, 川芎	8
	甘草, 當歸, 白芍藥, 生薑, 熟地黃, 人蔘, 川芎	
	甘草, 大棗, 半夏, 白朮, 茯苓, 人蔘, 陳皮	
8	甘草, 大棗, 半夏, 茯苓, 生薑, 人蔘, 陳皮	7
	甘草,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陳皮	
	甘草,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半夏, 白芍藥, 肉桂, 陳皮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朮,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生薑,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生薑, 熟地黃, 肉桂,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當歸, 防風, 白芍藥, 生薑, 人蔘, 川芎	
	甘草, 當歸, 大棗, 白朮, 茯苓, 生薑,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黃芪	
	甘草, 當歸, 白芍藥, 熟地黃, 人蔘, 陳皮, 川芎	
	甘草, 當歸, 白朮, 茯苓,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人蔘, 陳皮, 川芎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熟地黃, 陳皮, 川芎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茯苓, 熟地黃, 人蔘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茯苓, 人蔘, 川芎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生薑, 人蔘, 陳皮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當歸,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白朮,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도표 8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7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人蔘, 陳皮의 조합으로 11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熟地黃, 人蔘, 川芎의 조합이 공동으로 10 회 사용되었다.

9) 藥物의 개수가 8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8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6이고 표준편차는 1.1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3인데, 이는 5보다 작으므로 결국 5가 최소 頻度數가 된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8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78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상위 13 개를[28]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藥物의 개수가 8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7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	
3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6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黃芪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茯苓, 熟地黃, 人蔘, 川芎	
	甘草, 當歸,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甘草, 大棗, 半夏, 白朮, 茯苓, 生薑, 人蔘, 陳皮	
	甘草,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人蔘, 黃芪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甘草, 當歸, 白朮, 茯苓,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28) 藥物의 개수가 8 개인 藥物 조합의 경우, 頻度數가 큰 상위 조합을 다른 경우처럼 15 개가 아닌 13 개만 도표에 제시하는 이유는 나머지 65 개의 藥物 조합이 모두 동일하게 5 회의 頻度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체 78 개를 모두 제시하는 것보다 상위 13 개만 제시하는 것이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표 9를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8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이 각각 7 회씩 사용되었다.

10) 藥物의 개수가 9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9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9이고 표준편차는 1.4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3인데, 이는 5보다 작으므로 결국 5가 최소 頻度數가 된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9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17 개인데, 이중 頻度數가 큰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藥物의 개수가 9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白朮, 茯苓)	6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陳皮	
3	甘草, 當歸, 大棗,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白朮, 白芍藥)	5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肉桂, 茯苓)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川芎(蔘朮飮 祛半夏, 陳皮)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陳皮	
	甘草,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當歸, 白芍藥)	
	甘草, 當歸,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大棗,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陳皮	
	甘草, 當歸, 大棗, 白朮, 附子,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生薑,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熟地黃,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肉桂,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人蔘,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十全大補湯 祛黃芪, 白芍藥)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茯苓, 熟地黃)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十全大補湯 祛甘草, 白芍藥)	

도표 10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9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十全大補湯에서 白芍藥과 茯苓이 빠진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陳皮의 조합으로 각각 6 회 사용되었다.

11) 藥物의 개수가 10 개인 藥物 조합

467 개의 處方 속에서 10 개의 같은 藥物이 함께 조합되어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은 1.3이고 표준편차는 0.8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3인데, 이는 5보다 작으므로 결국 5가 최소 頻度數가 된다. 즉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가 10 개인 경우는 5 회 이상 사용된 藥物 조합을 일정한 의미가 있는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藥物 조합은 단 1 개뿐인데, 이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藥物의 개수가 10 개인 藥物 조합 중 多頻度 조합과 그 頻度數

순위	藥物名	頻度數
1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	5

도표 11을 살펴보면, 藥物의 개수가 10 개인 藥物 조합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이자 최소 頻度數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약물 조합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으로 5 회 사용되었다.

2. 藥物 조합 頻度 분석 결과 考察

지금까지 467 개 處方 내에서 324 개의 藥物이 이루고 있는 조합을 살펴보았는데, 'n 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각 藥物 조합이 467 개의 處方 속에서 사용된 頻度數의 평균+표준편차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와 '『方藥合編』 전체 處方 개수인 467의 1%인 4.67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인 5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수를 최소 頻度數로 설정하고, 이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藥物 조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45 개를 선별할 수 있었다. 즉 다른 藥物 조합에 비해 多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이 모두 5,045 개였는데, 이를 각 조합을 이루고 있는 藥物 개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1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2.9, 표준편차가 28.1, 최소 頻度數가 42,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25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은 甘草로 287 회 사용되었다.

둘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2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6.1이고 표준편차는 11.0이다. 최소 頻度數가 18,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155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와 生薑의 조합으로 142 회 사용되었다.

셋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3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3.8, 표준편차가 5.6, 최소 頻度數가 10,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549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生薑, 陳皮의 조합으로 84 회 사용되었다.

넷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4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2.7, 표준편차가 3.2, 최소 頻度數가 6,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1,336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生薑, 陳皮의 조합으로 45 회 사용되었다.

다섯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5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2.1, 표준편차가 2.0,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1,568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의 조합으로 23 회 사용되었다.

여섯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6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1.5,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964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人蔘의 조합으로 16 회 사용되었다.

일곱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7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7, 표준편차가 1.2,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352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大棗,白朮,茯苓,生薑,人蔘,陳皮의 조합으로 11 회 사용되었다.

여덟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8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6, 표준편차가 1.1,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78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으로 각각 7 회씩 사용되었다.

아홉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9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9, 표준편차가 1.4,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17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陳皮의 조합으로 각각 6 회 사용되었다.

열째,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10 개인 경우는 頻度 평균이 1.3, 표준편차가 0.8, 최소 頻度數가 5,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수가 1 개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藥物 조합이자 최소 頻度數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약물 조합은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으로 5 회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多頻度 藥物 조합 중 가장 方藥合編의 특징을 잘 반영한 조합은 구성 약물 개수가 가장 많은 10 개의 藥物로 구성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이다. 얼핏 보면 287 회로 頻度가 가장 많은 甘草나 142 회로 그 다음으로 頻度가 많은 甘草와 生薑의 조합이 5 회 사용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287 회 사용된 甘草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의 頻度 중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것이 甘草와 生薑의 조합이다. 즉 구성 藥物의 개수를 n 이라 할 때, 구성 藥物 개수가 n+1인 多頻度 조합이란 n일 때의 多頻度 조합에 藥物 개수를 1 개 추가하여 선별한 것이므로 앞선 단계의 頻度는 이미 충족하고 있다. 즉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藥物 조합 중 가장 구성 藥物 개수가 많은 10 개로 이루어진 藥物 조합인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은 1 개에서 9 개까지의 藥物로 구성된 藥物 조합이 갖고 있는 頻度를 이미 모두 충족한 최종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은『方藥合編』處方 내에서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5,045 개의 多頻度 藥物 조합 중 가장『方藥合編』의 방제구성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藥物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10가지의 藥物이『方藥合編』에서 가장 선호되어 사용된 藥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합의 분석을 통해『方藥合編』處方 구성의 특징과 著者의 醫學觀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藥物 조합을 살펴보면, 十全大補湯에서 川芎과 白芍藥이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十全大補湯은 補氣劑인 四君子湯(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과 補血劑인 四物湯(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을 合方하고 여기에 附子와 肉桂를 加했다."는 說과[29] "十全大補湯은 氣血이 모두 虛弱한 것을 다스린다."[30]는 說을 고려할 때, 그리고 "十全大補湯은 일체의 虛損證에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쓸 수 있다"[31]라는『方藥合編』著者의 해설을 고려할 때, 十全大補湯에서 四物湯 구성 藥物에 해당하는 川芎과 白芍藥이 빠진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藥物 조합은 補血 효능에 비해 補氣 효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형된 일종의 十全大補湯加減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즉『方藥合編』에서는 補血 효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補氣 효능이 강한 일종의 十全大補湯加減方이라 할 수 있는 藥物 조합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方藥合編』處方 내에서 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補氣 및 補血 효능을 가진 藥物들이 가장 多頻度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方藥合編』에 수록된 處方 내에는 虛損을 치료하는 藥物들이 가장 선호되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補血보다는 補氣의 효능을 가진 藥物들이 조금 더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補氣血을 중시하되 補血보다는 補氣를 조금 더 중시한 것이 著者의 醫學觀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處方 분석을 통해『方藥合編』의 方劑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 著者의 醫學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24 개의 藥物이 467 개 處方 속에서 만들고 있는 藥物 조합의 頻度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藥物 조합은 모두 5,045 개가 있었다.

2.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가 1 개인 경우는 287 회 사용된 甘草가, 2 개인 경우는 142 회 사용된 甘草와 生薑의 조합이, 3 개인 경우는 84 회 사용된 甘草, 生薑, 陳皮의 조합이, 4 개인 경우는 45 회 사용된 甘草, 大棗, 生薑, 陳皮의 조합이, 5 개인 경우는 23 회 사용된 甘草, 大棗, 白朮, 生薑, 人蔘의 조합이, 6 개인 경우는 16 회 사용된 甘草,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人蔘의 조합이, 7 개인 경우는 11 회 사용된 甘草, 大棗, 白朮,

29) 康舜洙. 바른 方劑學. 서울. 대성문화사. 1996. pp.200-201.
3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한미의학. p.2650. "十全大補湯 治氣血俱虛"
31) 黃度淵 原著, 李泰浩 編著. 新訂對譯 方藥合編(大). 서울. 행림출판사. 1992. p.133. "一切虛損皆可隨症加減"

茯苓, 生薑, 人蔘, 陳皮의 조합이, 8 개인 경우는 각각 7 회씩 사용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이, 9 개인 경우는 각각 6 회씩 사용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과 甘草, 當歸, 大棗, 白芍藥, 白朮, 生薑, 肉桂, 人蔘, 陳皮의 조합이, 10 개인 경우는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이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되었다.

3. 多頻度 藥物 조합 중 가장 『方藥合編』 方劑 구성의 특징을 잘 반영한 조합은 구성 약물 개수가 가장 많은 10 개의 藥物로 구성된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조합이다.

4. 十全大補湯에서 四物湯 구성 藥物에 해당하는 川芎과 白芍藥이 빠진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白茯苓, 生薑, 熟地黃, 肉桂, 人蔘, 黃芪의 藥物 조합은 補血 효능에 비해 補氣 효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형된 일종의 十全大補湯加減 조합이라 할 수 있다.

5. 『方藥合編』에 수록된 處方 내에는 虛損을 치료하는 藥物들이 가장 선호되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補血보다는 補氣의 효능을 가진 藥物들이 조금 더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補氣血을 중시하되 補血보다는 補氣를 조금 더 중시한 것이 著者의 醫學觀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강성용, 최민호, 변재영, 한종현. 方藥合編에 收錄된 藥物의 頻度調査. 원광한의학회지. 1991. 제1권 1호. pp.19-31.
2. 金亨泰, 尹暢烈.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1. 제5권. p.171, 193. pp.151-199.
3. 김상찬, 변준석. 黃芩 片芩 및 條芩의 處方例에 關한 文獻的 考察(方藥合編의 上中下統 處方을 中心으로). 동서의학지. 1998. 제23권 4호. pp.78-100.
4. 이선아, 이시형.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 제11권 1호. pp.101-109.
5. 송인선, 오민석, 송태원. 附子를 包含하는 方藥合編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1. 제10권 1호. pp.323-336.
6. 이중휘, 송태원, 오민석. 方藥合編에 收錄된 痺證 處方에 對한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1. 제10권 1호. pp.375-383.
7. 박민철, 최인화. 方藥合編 皮膚外科 處方에 대한 分析.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 제16권1호. pp.42-62.
8. 염현식, 김희수. 方藥合編 下統 方劑의 病症 및 病理 活用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3. 제11권 1호. pp.45-55.
9. 박종찬, 이장천, 국윤범, 염현식, 윤용갑. 方藥合編中 蒼朮이 配伍된 方劑의 活用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3. 제11권 2호. pp.41-60.
10. 조대연, 김영일, 이용숙, 강성현, 박종찬, 노의준, 윤용갑. 方藥合編 中 婦人科에 관련된 方劑의 활용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pp.1543-1547.
11. 황상준, 오민석, 송태원. 桃仁 및 紅花를 포함하는 方藥合編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3권 1호. pp.311-320.
12. 이주호, 윤일지, 오민석. 方藥合編中 羌活 및 獨活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 제14권 1호. pp.167-177.
13. 한주원, 오민석. 方藥合編中 牛膝 및 續斷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 제14권 1호. pp.179-186.
14. 배재현, 윤일지, 오민석. 方藥合編中 生薑 및 大棗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11-230.

15. 신홍중, 조연행, 조창환, 오민석. 方藥合編中 遠志 및 石菖蒲를 포함한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31-238.
16. 임영환, 국윤범. 生薑 三片과 大棗 二枚의 사용에 대한 考察 (方藥合編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6. 제14권 1호. pp.1-10.
17. 최재영, 오민석. 方藥合編處中 鹿茸을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1호. pp.161-167.
18. 한영수, 박갑규, 엄희정, 오민석. 方藥合編中 大黃 및 梔子를 포함하는 處方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 제15권 2호. pp.247-261.
19. 이상현. 方藥合編 上統 處方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9. 제17권 1호. pp.1-16.
20. 김지훈, 구병수, 김근우. 方藥合編에 수재된 神經精神科 관련 주요 處方에 대한 硏究.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9. 제20권 1호. pp.89-106.

<단행본>

1. 黃度淵 原著, 李泰浩 編著. 新訂對譯 方藥合編(大). 서울. 행림출판사. 1992. p.133.
2. 康舜洙. 바른 方劑學. 서울. 대성문화사. 1996. pp.200-201.
3.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한미의학. p.2650.